

“신속한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뿌듯합니다”

●광주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센터 찾은 80대 노인 심정지에 CPR로 목숨 살려 직원들 일사불란한 대처...“최근 실전교육 큰 도움”

“당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노인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살린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화제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재증명 발급을 위해 찾아온 A(82)씨가 민원장구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 공무원들은 쓰러진 A씨를 보고 부축해드리기 위해 나갔지만 경련을 일으키다 발작이 줄어들며 A씨의 낮빛이 흐려진 모습을 봤다.

이후 호흡이 점점 줄어들자 한호경(27·여), 윤선미(32·여) 주무관은 즉각 119에 신고한 뒤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센터의 다른 공무원들은 자동심장충격기(A

ED)를 준비하며 시민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119 구조대원들과 전화를 통해 소통,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했다.

그렇게 2·3분이 지나 ‘푸하’라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후 119구급대와 A씨의 자녀 B씨가 도착해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센터 공무원들이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광주 남구가 김병내 구청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공직자 6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초청,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정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장의 기능이 정지된 현상으로 골든타임 4·5분을 넘기면 뇌



왼쪽부터 윤선미 주무관, 정영두 월산4동장, 한호경 주무관.

세포로 산소 공급이 안돼 손상이 일어난다.

처음 상황을 파악한 한호경 주무관은 “당시 119구급대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생각에 앞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고 말했다.

윤선미 주무관은 “인터넷이나 강의로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지만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며 “실전

위주의 교육을 듣고 난 후 상황을 본 터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았다”며 전했다.

정영두 월산4동장은 “초를 다루는 긴급상황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침착하게 대응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원활한 행정을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광주매일신문, 꿈꾸는아이들아동센터 미디어 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 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18일 광주 북구 꿈꾸는아이들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쉽게 따라하는 신문 만들기’ 교재를 통해 어떤 사안이 뉴스가 되는지와 뉴스로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부했다. 또 글을 잘 쓰는 방법, 기사의 특성에 대한 이론교

육이 실시됐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황예슬(하백초 4)·최선비(하백초 4)·진시연(하백초 4)·김용남(하백초 5) 학생은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기사를 육하원칙으로 분석해 보면서 신문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전남재향경우회-부산재향경우회 ‘영호남 교류행사’

전남도재향경우회는 “최근 부산경우회관에서 부산시재향경우회와 함께하는 제2회 영·호남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류 행사는 전남도재향경우회 한기민 회장, 오현석 자문위원장, 서채수 사무처장, 조용원 고문, 최철웅 목포재향경우회장 등 임원진과 부산시재향경우회 김상근 회장, 박유근 자문위원장, 김영국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영·호남교류행사는 지난 2021년 7월 최초 협약을 맺어 두 경우회 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두 지역 경우

회원들의 유대를 돈독히 다지고 있으며 매년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한기민 전남재향경우회장은 “두 경우회가 상호 교류하는 데 대해 전국 경우회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두 경우회 간 우정과 만남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근 부산시재향경우회장은 “먼 길을 마다않고 진땀을 도모하기 위해 와줘서 고맙고,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맺어진 인연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우정을 다져 타시도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녹색환경센터 ‘여수국가산단 탄소중립 세미나’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최근 여수국가산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합동강의실에서 ‘제2회 환경의 날 기념 여수국가산단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여수산단환경협의회, 전남네트워킹포럼 등 관련자는 물론 전남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 등 120여명

이 참석했다. 이 중 최보훈 에이스안전환경기술원 사장, 유종익 솔루티스 박사, 문영수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류적용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협력실장이 여수국가산단단지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여수국가산단은 세계 제일의 석유화학산단으로 전남 산업부문에 에너지 사용량의 66.8%(2천 300만toe), 온실가스 배출량의 41.7%(3천 300만toe)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빛길모, 여수 하화도서 꽃섬길 트레킹

빛길모 회원들은 이날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40여분 만에 아름다운 섬 하화도에 도착, 바다를 벗 삼아 한바퀴를 도는 5km의 둘레길을 걸었다.

빛길모(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이사장 박성수) 회원 30여명은 17일 여수 하화도에서 61회 정기모임을 갖고 꽃섬길을 걸었다. /빛길모제공

담양 봉산면, 노인일자리 감자 수확 ‘나눔 실천’

담양군 봉산면은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재배한 감자 10kg 150박스를 수확, 판매 어려운 이웃 120가구와 경로당 30개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수확한 감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지난 3월부터 정성껏 키워 더욱 의미가 있다. 4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텃밭에서 일하며 삶의 활력을 찾고 내가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들과 나누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무더운 날씨와 지친 일상에 하지감자를 먹으면서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온정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기자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온정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기자

영암경찰, 4차 영암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개최

영암경찰서는 “최근 경찰서에서 경찰, 군청, 군의회, 교육청 등 실무진이 참여하는 ‘제4차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는 분기마다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교통 안전시설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개선 ▲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노인보호구간 확대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했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안건을 추진해 주민 안심 치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영암=나동호기자



김종득 영암경찰서장은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무안군, 등갯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안교육지원청, 오룡초등학교, 오룡중학교와 함께 등갯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등갯길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청소년위기전화 188 홍보를 위해 홍보 물품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김산 군수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안군과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나주경찰,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홍보활동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 관내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 및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주경찰서는 나주시 관내 각 마을별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고령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을 방문해 어르신 보행 3원칙, 이론차·사륜오토바이·자전거 이용 원칙 등을 교육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했으며 나주 5일장을 돌며 전통월채어, 오토바이 등에 형광 반사지를 부착,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박상훈 나주경찰서장은 “나주의 모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서 안전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나주시민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원-국립장성숲체원 업무협약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한국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은 최근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청소년의 현장형 진로 체험을 통한 산림분야 미래 인재 육성과 고품격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림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밖 청소년 대상 현장형 진로체험 활성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재정기자

결혼

▲김용진·김인숙씨 장남 윤중(동명동 한식 돌에 대표), 허박병만·백미량씨 삼녀 지향양(7월 1일) 오전 11시 광주 리베스타 2층 엘루체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2(농성동 333-57). (06 2) 366-7766, 010-3646-9100.

▲정영국·최운선씨 장남 일형(경기 파주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신도윤·정정옥씨 장녀 유진양(7월 1일) 오후 5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5층 세인트그레이스홀.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신도림동 427-3), (02) 2162-2100, 010-4277-5569.